

# 2022. 4월 1주 언론보도 스크랩

## [정책보도] 봄철 산악사고 안전대책추진

G1방송

2022년 04월 02일  
(강원)

### 강원도소방본부, 봄철 산악사고 안전대책 추진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강원도소방본부가 봄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30개 주요 등산로와 산악사고 빈발 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모레(4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로 설악산 주변에 전문구조팀 3개소가 전진 배치됩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산에 얼음이 녹으면서 지표면이 미끄러워 낙상 우려가 크다며, 안전장비를 갖추고 산행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매일경제

2022년 04월 01일  
(사회)

## 강원 3년간 산악사고로 61명 숨져...봄철 안전 대책 추진

등산로 안전 시설물 점검·설악산에 전문구조팀 배치



### 산악구조

강원도소방본부는 도내 주요 등산로 30곳과 산악사고가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봄철 산악사고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등산로 주변 간이 구급함 등 안전 시설물 1천800여 개를 점검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

구조 능력을 강화하고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도 다진다.

특히 등산객이 몰리는 주말 외설악, 내설악, 남설악 주변에 전문구조팀 16명을 3개 조로 나누어 배치한다.

강원소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산악사고는 4천475건이 발생해 61명이 숨지고 2천272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사고 원인은 낙상·추락이 1천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난 518건, 무리한 산행 514건, 발목 접질림 410건, 질병 239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으로 보면 인제 858건, 춘천 416건, 원주 334건, 속초 321건, 정선 298건 등이다.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체력에 맞는 등산을 하거나 음주 산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반드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비상식량과 여벌의 옷과 같은 기본 등산 장비를 갖춰야 한다.

박순걸 방호구조과장은 "안전한 산행을 위해 안전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 최근 3년 도내 산악사고 4천 건 이상..2,300여 명 사상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  
산악 사고가 4천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사이  
도내에서 낙상과 추락, 조난 등  
산악사고가 4,475건 발생해  
61명이 숨지고 2,272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본부는 봄철 등산객 증가로  
산악사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오는 4일부터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점검 등 안전대책  
수립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연

## 강원소방, 구급대원 응급 분만 교육 실시



### 강원소방, 구급대원 응급 분만 교육 실시

강원소방본부가 구급차 내 응급 분만이 가능하도록 고위험 산모 처치와 신생아 심폐소생 등의 구급 대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화천과 정선 등 분만취약지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권역별 1회씩, 연중 4회 실시될 예정입니다.

분만취약지는 분만실까지 1시간 내 접근 가능한 인원이 30%가 안 되고, 그 중 가임 인구가 30% 이상일 경우입니다.

김초룡

江原日報

2022년 04월 05일  
(종합)

## 분만취약지역 구급대원 현장응급 특별순회교육

강원도소방본부는 4일부터 강원도 내 분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응급분만전문 특별순회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도내에는 화천, 철원 등 13개 시·군이 '분만취약지'로 지정돼 있으며, 원거리 출산 및 진료로 인해 임산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전국 곳곳에서 임산부를 실은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해도 산실을 배정받지 못해 구급차 내에서 출산을 하거나 확진된 임산부가 헬기를 타고 300km 이상 이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현장 응급분만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순회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교육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전문시뮬레이터(루시나)를 이용해 진행되며 고위험 산모 처치, 신생아 CPR 등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순찬(sckwon@kwnews.co.kr)

매일경제

2022년 04월 04일  
(사회)

## '분만 취약지 한계 극복하자'...강원소방 현장 응급분만 교육

구급차 출산 빈번에 헬기 이송 상황까지...전문 구급대 양성 도모



강원소방, 현장 응급분만 교육  
강원도소방학교는 4일부터 도내 분만 취약지역 13개 소방서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응급분만 전문교육을 한다.

강원소방이 최근 3년간 이송한 임산부는 총 275명으로, 이 중 91명이 응급 분만을 위한 이송 환자였다.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72%)이 보건복지부가 꼽은 분만 취약지에 해당할 정도로 의료시설이 부족해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구급대원과 임산부가 어렵게 병원까지 가더라도 분만실을 배정받지 못하고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 코로나19 확진 임산부가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헬기를 타고 300km 이상 이송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강원소방학교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현장 응급분만 대응능력과 고위험 산모의 특수한 상황에 대비한 전문교육을 한다.

실제 임산부와 유사한 응급상황 연출이 가능한 분만 전문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처치부터 분만, 신생아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한다.

구급 인력 부족으로 인해 대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된 점을 고려해 권역을 나누어 '찾아가는 교육' 방식으로 진행한다.

권선옥 소방학교장은 "임산부들이 갈 곳을 잃으면 소중한 미래를 잃는다"며 "분만 취약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소방, 현장 응급분만 교육  
[연합뉴스]

江原日報

# 국내 최초 '청소년 안전캠프' 태백서 열린다

## 태백시·도소방본부 협약

7월18일부터 3주간 진행

6차례 걸쳐 4,800명 대상

【태백】전국 최초로 소방관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가 태백에서 열린다.

태백시와 강원도소방본부는 4일 태백시청 소회의실에서 류태호 태백시장,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 김혁동 도의원, 권선욱 도소방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365청소년안전캠프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대한민국 365청소년안전캠프는 세계 최초의 안전체험테마파크인 365세이프타운의 시설 등을 활용, 청소년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태백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 7월18일부터 8월5일까지 3주간 2박3일씩 총 6회에



◇태백시(시장: 류태호)와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4일 태백시청에서 대한민국 365청소년안전캠프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걸쳐 1회 800명씩 모두 4,800명의 이용객을 유치, 세이프안전체험, 챌린지 트리트랙·소방체험, 응급수영·수상구조, 화재대응·피난대응 등 4개 분야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와 도소방본부는 시 관계자, 소방공무원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안전관리와 교육 등을 진행, 전국 최초로 소방관과 함께하는 고퀄리티 전문안전캠프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윤상기 도소방본부장은 “이

번 안전캠프는 지난해 류태호 태백시장, 김혁동 도의원과 각각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상이 시작돼 업무협약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국민들의 안전,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기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안전캠프를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 안전캠프가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전명록기자

(15.0\*14.7)cm

江原日報

2022년 04월 06일  
(종합)

## 위험물 운반자격 미취득 벌금형

강원도소방본부는 올 6월10일로 예정된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 시행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물질이 담긴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화물트럭 운전자를 말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위험물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취득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위험물 운반자 강습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6월10일 이후부터는 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이동저장탱크(탱크로리) 운전자인 위험물 운송자 또한 별도의 위험물 운반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권순찬(sckwon@kwnews.co.kr)

G1방송

2022년 04월 06일  
(강원)

## 강원소방, 위험물 운반 관리 강화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강원도 소방본부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위험물 운반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 운반자의 경우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 기능사나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송하다 적발되면,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정책보도] 화재취약계층 화재저감 정책 펼쳐

### 강원소방, 화재저감 정책 추진...화재취약계층 대상 아크차단기 보급



아크차단기 점검(강원도소방본부 제공)2022.4.6뉴스1

강원도소방본부는 5월 말까지 저소득 화재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아크차단기 보급을 통한 화재저감 정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 주택에 거주하는 100가구다.

이번에 설치되는 아크차단기는 누전과 전기스파크를 동시에 감지하는 전기 안전 장치로, 전기화재 예방에 효과적이다.

사업에는 2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는 강원도소방공무원이 매달 모금한 119 행복기금을 활용한다.

강원119행복기금은 전국 최초로 강원도소방공무원이 화재피해가구 지원 및 복구에 방을 위해 119의 상징성을 담아 매달 1190원씩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이다.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도민 안전복지를 높이기 위해 폭넓고 두터운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기화재 3년간 1,255건.. 누전·스파크 감지 차단기 보급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전기로 인한 화재만 1,2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소방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1,255건의 전기화재가 발생해  
60명이 다치거나 죽고, 12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소방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 취약 주택  
100가구를 대상으로 누전과  
스파크를 감지할 수 있는  
차단기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연

# [정책보도] 강원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 강원도민일보

2022년 04월 08일  
20면 (인물)

### 내일 도소방공무원 경력채용 시험

강원도소방본부가 2022년도 강원도 소방공무원 공개경력채용 시험을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춘천에 위치한 남춘천중, 남춘천여중에서 실시한다. 경쟁 경력채용 시험은 춘천 성수고에서 이뤄진다. 이번 강원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인력은 공개경력채용 75명, 구급·구조 등 경력경쟁채용 49명 등 총 124명을 선발한다.

신재훈

(5.6\*5.7)cm

## 강원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4월9일 오전 10시부터 남춘천중, 남춘천여중, 성수고

강원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2022년도 강원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을 오는 4월9일 오전 10시부터 남춘천중학교, 남춘천여자중학교, 성수고등학교에서 실시한다고 4월7일 밝혔다.

이번 강원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인력은 공개경력채용 75명, 구급·구조 등 경력경쟁채용 49명 등 124명을 선발하며 경쟁률은 각각 16:1(공채), 7:1(경채)이다.

구분	채용분야	응시번호	장소	소재지	일시
공개경력 채용	공채(남)	561-011-0001 ~ 561-011-0625	남춘천중학교	춘천	'22. 4. 9.(토) 10:00 ~ 11:40 (100분)
	공채(남)	561-011-0626 ~ 561-011-1088	남춘천여자중학교		
	공채(여)	561-012-0001 ~ 561-012-0129	남춘천여자중학교		
경력경쟁 채용	구급(남,여)	전원	성수고등학교	춘천	'22. 4. 9.(토) 10:00 ~ 11:00 (60분)
	구조				
	구조수난				
	정보통신				
	의무소방전역				
	안전관리 (예방)				
	자동차운전				
소방(학위)					

수험생들은 시험당일 오전 8시에 시험장이 개방되며 오전 9시20분까지 응시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본인 시험실에 입실해야 된다.

또 입실 전 발열체크와 반드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매일경제

2022년 04월 07일  
(사회)

# 38주 만삭 임신부 새벽녘 고속도로 위 구급차서 무사 출산

구급대원들 "건강히 자라주길"...강원소방, 응급분만 교육 강화



만삭 임신부 출산 도운 평창소방서 구급대원들  
분만병원을 향하던 임신부가 고속도로에서 119구급대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출산했다.

7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평창휴게소에서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임신 38주인 A(33)씨는 원주에 있는 분만병원을 가던 중 진통이 1~2분 간격으로 빨라지는 등 다급한 상황에 부닥치자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10여분 만에 도착한 119구급대에 의해 구급차로 옮겨져 곧장 병원으로 출발한 지 10분 만에 달리는 차 안에서 딸 아이를 출산했다.

구급대원들이 본부 종합상황실로부터 의료지도를 받으며 구급차에 있던 분만 세트를 활용해 침착하게 분만을 유도한 덕에 A씨의 딸은 구급차 안에서 세상의 빛을 봤다.

모녀는 오전 6시께 무사히 원주지역 산부인과로 옮겨졌다.

평창소방서 진부119안전센터 소속 성호원 소방장은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신생아를 받는 게 처음이라 낯설고 걱정도 했지만 무사히 출산해 다행"이라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도소방학교는 앞서 이달부터 도내 분만 취약지역 13개 소방서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응급분만 전문교육을 하고 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72%)이 보건복지부가 꼽은 분만 취약지에 해당할 정도로 의료시설이 부족해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 [정책보도] 고속도로 위 구급차서 출산

### 만삭 임신부 고속도로 위 진통...119구급차 안에서 무사히 출산



출산이 임박해 분만 병원으로 향하던 임신부가 119구급대원들의 도움으로 아기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오늘(7일) 새벽 5시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평창휴게소에서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임신 38주인 33살 A 씨는 원주에 있는 분만 병원을 가던 중 진통이 빨라지는 등 출산이 임박해오자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10여 분 만에 도착한 119구급대에 의해 구급차로 옮겨졌고, 병원으로 출발한 지 10분 만에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딸을 출산했습니다.

출산을 도운 구급대원들은 구급차 안에서 종합상황실의 의료지도를 받으며 비치된 분만세트를 활용해 침착하게 A 씨의 출산을 도왔습니다.

모녀는 1시간 만인 오전 6시쯤 무사히 원주지역 산부인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강원도소방학교는 이달부터 산부인과가 없거나 부족한 분만 취약지역 13개 소방서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응급 분만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산모로부터 신생아를 받은 평창소방서 119대원들.

## 달리는 구급차서 탄생한 새생명 무사히 받아낸 구급대원들 눈길

새벽 신고접수 평창 진부·용평구급대 여아 출산 도와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신생아가 태어나 화제다.

평창소방서(서장:최영수)에 따르면 7일 오전 5시34분께 임신 38주차인 30대 A씨가 영동고속도로 평창휴게소(인천 방면)에서 출산이 임박했다는 119 신고를 접수하고 진부·용평구급대가 긴급 출동했다.

A씨를 태운 구급차는 원주지역 산부인과를 향해 출발했고 불과 10분 만에 달리는 차 안에서 딸 아이를 출산했다.

구급대원들은 본부 종합상황실의 의료 지도를 받으며 구급차에 비치된 분만세트를 이용해 침착하게 분

만을 유도, 건강하게 여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왔다.

평창 진부119안전센터 소방장 성호원 대원은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신생아를 받는 게 처음이라 낯설고 걱정도 컸지만 다행히 무사히 출산을 마쳐 보람차다”며 “소방공무원으로서 큰 긍지를 느끼며 아이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 4일부터 도내 분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응급 분만 특별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평창=김광희기자 kwh635@

(11.6\*18.4)cm

매일경제

2022년 04월 07일  
(사회)

## 동해안 대형산불 위험 고조...강원소방, 최고수위 대응

건조·강풍 특보 발효에 당분간 강수 확률 희박



강릉 선교장서 산불 진화훈련  
강원 동해안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소방당국이 대응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강원도소방본부는 7일 상황판단 회의를 열고 동해안 산림과 인접한 문화재와 주요 사찰, 민가 지역에 미리 물을 뿌리기로 했다.

산불 대응 강화 차원에서 13일까지 영동 지역에 두기로 했던 영서 지역 소방차 24대는 17일까지 둔다.

또 소방력 100% 출동태세 유지와 함께 산불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을 조기에 가동하는 등 선제 대응을 강화한다.

현재 도 전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이날 오후부터 산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졌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17일까지 강수 확률이 희박하다.

박순걸 방호구조과장은 "도민 여러분께서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 산불 발생 위험 고조...강원소방 산불대응 '최고수준' 강화



산불대응 최고수준으로강화한강원소방(강원소방본부제공)2022.4.7/뉴스1

강원도 전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고조되자 소방당국이 산불대응 수위를 최고수준으로 강화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7일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동해안 산림 인접 문화재와 주요사찰, 민가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해안 전진(보강)차량 배치기간을 기존 13일에서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한다.

앞서 지난 1일 강원소방은 춘천·원주 등 영서지역 소방차량 24대를 동해안 6개 시·군에 분산배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소방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가용소방력 100% 출동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긴급구조통제단을 조기 가동해 산불대응체계를 강화한다.

7일 현재 도 전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동해안 일대에는 지난 5일부터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실효습도가 33% 이하로 산불발생에 매우 취약하다.

기상정보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강수확률이 희박하고 강풍까지 불면서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박순걸 방호구조과장은 "건조한 날씨 속 강풍까지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주의해야 한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04월 07일  
(사회)

# 강원 건조특보에 강풍까지...소방당국 산불 대응 최고 수준 수위 높여

노현아



### ▲ 건조주의보

태백, 정선군 평지 등 강원지역 5곳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소방당국이 산불 대응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기상청은 7일 오후 3시20분을 기해 태백, 정선군 평지, 남부산지, 중부산지, 북부산지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통상 사람이 바람을 안고 걷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가운데 원주 등 도내 21곳에는 건조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어 산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춘천, 횡성, 인제군 평지, 양구군 평지, 홍천군 평지에 건조주의보를 발효했다.

앞서 원주 등 16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건조특보가 도내 전역으로 확대됐다.

건조주의보는 이틀 이상 목재 등의 건조도가 3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이날 상황판단 회의를 열고 동해안 산림과 인접한 문화재와 주요 사찰, 민가 지역에 미리 물을 뿌리기로 했다.

산불 대응 강화 차원에서 13일까지 영동지역에 두기로 했던 영서지역 소방차 24대는 17일까지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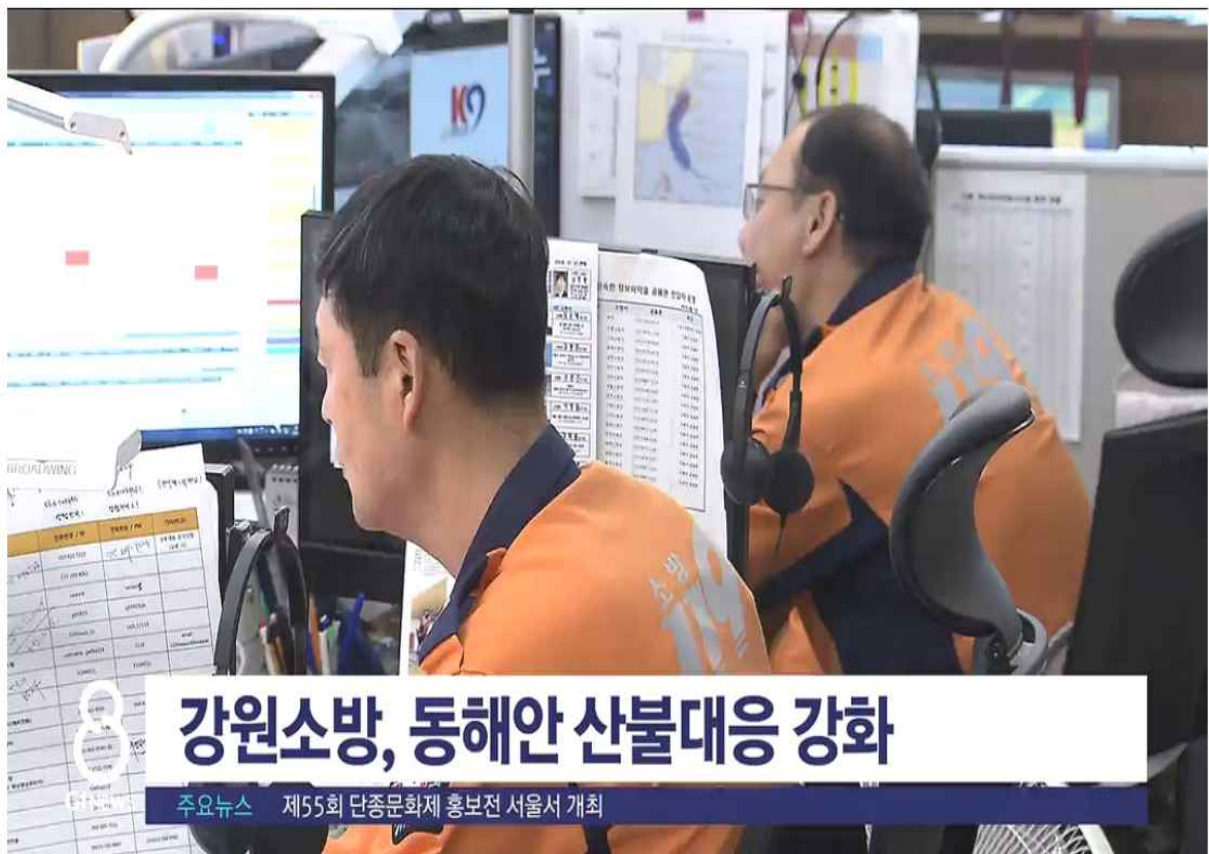
또 소방력 100% 출동태세 유지와 함께 산불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을 조기에 가동하는 등 선제 대응을 강화한다.

박순걸 도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은 “도민 여러분께서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now7310@kado.net

## 도소방, 동해안지역 건조에 따른 산불대응 강화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강원도소방본부는 동해안에 연일 건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산불대응 단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동해안에 전진 배치된 영서권 소속 소방차 24대의 배치 기간을 연장하고,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합니다.

또, 동해안 산림과 인접한 문화재와 주요 사찰과 민가에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물을 살수하기로 했습니다.

江原日報

2022년 04월 06일  
(종합)

## 강원소방 대형헬기 추가 도입



강원소방 대형헬기 추가 도입 ◇사진=강원일보DB

속보=강원도소방본부가 2024년 상반기 도입 완료를 목표로 대형헬기 수의계약을 진행할 계획(본보 3월29일자 4면 보도)인 가운데 대형헬기 1대 추가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도소방본부는 최근 산불진화용 대형헬기 1대 추가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아직까지 산불진화용 대형헬기가 1대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대형헬기 1대를 도입하고, 국비 150억원, 도비 150억원 등 총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2026년 12월까지 1대를 추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대형헬기를 추가로 도입한다면 대형산불이 주로 발생하는 동해안을 2개 권역으로 나눠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1권역은 고성-속초-양양-강릉 북부, 2권역은 강릉 남부-동해-삼척으로 나뉜다.

권순찬(sckwon@kwnews.co.kr)

G1방송

2022년 04월 06일  
(강원)

## 강원소방, 대형 소방헬기 추가 도입 추진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강원도소방본부가 대형 소방헬기 추가 도입을 추진합니다.

소방본부는 오는 2024년까지 대형 소방헬기 한 대를 강릉에 배치하기로 한 가운데, 2026년까지 대형헬기 한 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청에 관련 예산 30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04월 06일  
(사회)

# 강원소방 '산불진화 대형헬기' 추가 도입 국비 지원 요청

신재훈

수의계약 포함 투트랙 전략 추진



산불 진화헬기가 진화에 나서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속보=동해안 일대 대형 산불을 계기로 강원도소방본부가 서둘러 산불진화 대형 헬기 도입을 재추진(본지 3월 25일자 4면 등)하는 가운데 추가 대형헬기를 도입하기 위해 소방청에 국비지원을 요청, 투트랙 전략에 나섰다.

5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도소방본부는 도내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최근 발생한 동해안 지역 산불현장에서 진화헬기가 부족해 초동대응이 어려워 화재가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현재 보유한 헬기로 부족하다고 판단, 수의계약과는 별개로 추가 헬기구매가 필요한 상황을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보고, 소방청에 국비 27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도소방본부는 구조용 헬기 2대만 보유, 대형 헬기는 한 대도 없다.

실제 강원도는 2019년 4월 고성과 속초일대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3월 삼척, 강릉, 동해 일대를 강타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대형 소방헬기의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국비 요청을 한 상태이지만 여러 심사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확실 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예산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6년에는 헬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도소방본부는 보고 있다.

대형 헬기 도입을 위한 수의계약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도소방본부는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규격심사 평가에 들어간다. 계약이 차질 없이 진행 될 경우 2024년 상반기 도입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훈

ericjh@kado.net

G1방송

2022년 04월 05일  
(강원)

## 강원소방, 대형 소방헬기 추가 도입 추진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강원도소방본부가 대형 소방헬기 추가 도입을 추진합니다.

소방본부는 오는 2024년까지 대형 소방헬기 한 대를 강릉에 배치하기로 한 가운데, 2026년까지 대형헬기 한 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청에 관련 예산 30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江原日報

2022년 04월 04일  
(종합)

**[포토뉴스] 강원소방 터널구조 훈련**



강원도소방본부 특수구조단(단장:최임수)은 지난 1일 대관령 KTX 철도터널 내에서 화재 및 인명구조를 위한 야간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